

한길구역교재

7과 Before and After

에베소서 2:1-6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들어가면서

에베소서 2장의 구조와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을 기준으로 한 before와 after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 (1-10절)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before/after를 말하고, 후반부 (11-22절)은 공동체로서의 before/after를 말합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 구조

1. 에베소서 2:1-10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 ① 구원 이전의 모습: 1~3절
- ② 구원 이후의 모습: 4~7절
- ③ 구원의 은총에 관하여: 8~10절

■ 구원 이전의 모습

2. 성경은 구원 이전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에베소서 2:1

- 허물(trespases)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죄(sins)는 과녁을 놓치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자람을 의미합니다. (존 스토티, *BTS 에베소서*)
 -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32
-
-

3. 이 영적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2:2

- 적용질문: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세계관, 가치관, 문화, 행동 등의 관점에서)
-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4.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3

-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예레미야 17:9

- 본질상 진노의 자녀
로마서 5:12

■ 구원 이후의 모습

앞에서 살펴본 2장 1~3절 안에는 주어와 (주)동사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 없이 관계절들과 구문들로 복잡하여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나”(한국 번역에는 없음) 이후에 문장의 첫 주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는 하나님 이십니다. 1~3절은 하나님이 없는 단어들의 배열로 영적 어두움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번에 뒤집는 생명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문장의 형식과 구조는 우리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5. 에베소서 2:4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4

-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 그 사랑으로 인하여

6.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동사 3개를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5-6

- ① 함께 살리셨고
- ② 함께 일으키사
- ③ 함께 앉히셨으니

로마서 6:4-5

갈라디아서 2:20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것은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낮아짐 없는 높아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 읽어보기

신약 기독교에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새로운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독특성은 무엇인가? 그저 그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심지어 경배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이 교회의 교의들에 동의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그들이 특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산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독특하게 만드는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새로이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착석에 참여한다. “하늘에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의 세계에서, 통치지들과 권세들이 작용하고, (3 : 10: 6:12)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1 :20) 그 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며(1 :3), 거기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2:6) .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면 어디에 앉는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보좌 위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우심에서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말은 그저 무의미한 기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산 체험을 증거한다. (존 스토트)